

음반으로 소설로 '국창 임방울' 추억하다

'들어 보시게, 시절을 뛰어 넘어 명장은 한 번 반드시 나타나는 법/우당탕 통통 울대를 꺾으며 저 여울을 건너오는/임방울, 소리 한가락으로 비단옷을 입은 늙은이/살이 어찌 이다지 휘돌아 치며 도도히 흘러갈 수 있던 말인가'
(송천호 시 '임방울' 중)



알라딘 절판 음반 '수궁가' 완창본 발매
임방울국악진흥회, 6장 분량 전집 제작
한승원 소설 '사랑아, 피를 토하라' 펴내

1956년 11월24일 오후 6시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연주실 일소당.
 국 소개와 함께 국창 임방울 선생이 '호남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전날 부산 공연을 마치고 밤새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그는 제대로 휴식도 못한 채 바로 무대에 섰다. 국립국악원과 국악진흥회 공동 주최로 열린 '수궁가' 완창 무대는 2시간 15분에 걸쳐 진행됐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5년 전, 마지막 열정을 불사른 완창이다.
 광주시 광산구(옛 전남 광산군 동곡면)에서 태어난 임방울(1904~1961)은 8살 때 박재현에게 '춘향가'와 '흥보가'를 배우며 소리를 시작했다. 이후 공창식·유성준 선생을 사사한 그는 첫번째 무대인 서울 동양극장에서 '쑥대머리'를 불러 이름을 떨친다. 당시 그가 취입한 '쑥대머리' 레코드는 120만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임방울 선생의 '수궁가' 완창 실황 녹음집이 출시됐다. 수년 전 복각 작업을 통해 CD로 출판됐지만 절판돼 애호가들 사이에 구하기 어려운 자료로 꼽혔던 음반이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알라딘 절판 음반 단독 제작 시리즈'로 1956년 공연 실황을 3장의 CD에 담았다.
 음반에는 임 명창의 인사말과 '호남가'를 시작으로 '용왕 탄식'부터 마지막 '토끼 독수리 만나는' 대목까지 담겨 있다. 고수는 김세준씨가 맡았다.
 이번에 발매된 CD는 KBS 미디어에 보관돼 있던 릴 테이프 녹음 자료를 리마스터 보정 작업한 것이다. 녹음 장비 한계로 음질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관객들의 추임새와 박장대소 등 현장의 생동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함몰이 쉬어가자고 하는 임방울의 목소리가 생생히 녹음돼 있다) 또 배연형(KBS '국악의 향연 판소리' 진행자)씨가 채록한 전곡 가사가 실려 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임방울국악제를 주최하는 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 역시 6장 짜리 '국창 임방울 판소리 대전집'을 제작했다. 이번에 발매된 알라딘 음반과 같은 음원인 '수궁가'와 1957년 9월21일 역시 국립국악원 연주실 실황 녹음인 '적벽가'(고수 김세준) 2장, '쑥대머리', '호남가' 등 토막 소리를 담은 음반 한창 그리고 1957년 5월 명창 박귀희씨가 복채를 담은 공연 실황, 1956년 '춘향가' 중 몇대목을 담은 충주 공연 실황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2009년에 첫 복각 작업을 한 후에 2010년 다시 한번 음반을 찍었다.
 진흥재단은 또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을 펴내고 전시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기억 임방울국악진흥회 사무국장은 "임방울 선생의 육성이 담긴 음반이 다시 발매돼 의미가 있다"며 "국악애호가들로부터 재단에서 출판한 전집 구매 문의도 있다"고 말했다.
 소설가 한승원이 최근 펴낸 장편 소설 '사랑아, 피를 토하라'는 임방울 선생의 삶을 다룬 책이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전축을 사고 임방울의 음반을 사 모은 한씨는 아내로부터 '임방울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
 '사랑아, 피를 토하라'는 구한말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평탄치 못했던 시대를 소리꾼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벗으로 살고자 했던 국창 임방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소설에는 단가 '추억'을 날게 한 기생 산화와의 애절한 사랑, 시인 김영랑 등 당대 '귀명창'들과의 우정, 대립구도를 이룬 명창 김연수와의 갈등과 화해, 치열한 독공을 통해 이룬 성공 등이 담겼다.
 임방울 선생의 삶을 묘사한 전기로는 을유문화사의 '현대의 거장' 시리즈 중 한권인 전기작가 '임방울 : 우리 시대의 최고의 소리 광대'와 천이두의 '전설의 임방울' 등이 있다.
 그밖에 임지형&광주무용단과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은 지난 2012년 '가객, 국창 임방울'을 무대에 올렸다. 올해는 오는 9월과 11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두차례 공연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천원의 낭만' 14일 광주문예회관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7월 행사가 열린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씨의 독주회로 꾸며진다. 1년에 한 차례 지역 젊은 예술인들의 초청에 마련하는 무대다.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L'Arbre Ensemble 단장과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김씨는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레퍼토리는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카를 시마노프스키의 '독특과 타란텔라 작품번호 제28번',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김은에서다.
 천원의 낭만은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매달 한차례씩 열린다.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영실 작 'superman'

꽃에서
 '理想香'이
 난다

대인예술시장 한평 갤러리 '이상향'전 ... 25일까지

작가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와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대인예술시장에서 열린다.
 한평갤러리는 오는 25일까지 고수진, 김혁, 서영실, 염순영, 이선희, 정현성씨를 초대해 '이상향(香)'전을 연다.
 정크 아티스트 고수진씨는 톱날 등을 재활용해 꽃을 피워낸다.
 팝 아티스트 김혁씨는 자신과 주변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FunKi-mArt' 시리즈를 선보인다. 미묘한 색채 구성과 작가 특유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서영실씨는 수많은 나비와 꿀벌들이 찾아오는 꽃과 같은 삶에 대한 소망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염순영씨는 꽃의 색과 빛을 기억 속 전상처럼 그려낸 작품을 전시한다.
 이선희씨는 기억 속 꽃 향기를 불러내는 듯한 이미지를 그렸고, 정현성씨는 감성과 분노, 동물과 자연 등을 연결시켜 공동체적 이상향을 표현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작가들은 대인시장 별장프로젝트 사무국(062-233-1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민기자 kki@

만화의 추억

한평 잠월미술관 31일까지
 만화학과 출신 청년작가전

황민식 작 'for happiness'

누구나 만화에 대한 추억이 있다. 어릴 적 물레 만화 가게에 앉아서 노심초사하면서 보던 기억, 만화책을 전복 빌려놓고 수업시간에 몰래 꺼내서 읽었던 기억 등이 어렵듯하게 떠오르기도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했지만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그만큼 만화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다.
 한평 잠월미술관이 오는 31일까지 만화학과를 졸업한 청년작가들을 초대해 '만화(漫畵), 만화경(萬華鏡)'전을 연다.
 전시에는 상명대 만화학과 출신으로 웹툰, 캐릭터, 일러스트, 카툰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호, 김진환, 이현술, 황민식, 오상혁, 이현진, 심성원씨 등 7명의 작가들이 초대됐다. 이들은 만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적인 만화장르를 전시한다.
 특히 만화경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표현력과 참신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전시다. 문의 070-8872-6718.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상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